

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

김 인 화[†]

한국폴리텍여자대학 패션디자인과

The Effect of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and Weight Control of Women

In-Hwa Kim[†]

Dept. of Fashion Design, Korea Women's Polytechnic

접수일(2010년 4월 24일), 수정일(1차 : 2010년 7월 2일, 완료일 : 2010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2010년 8월 19일)

Abstract

This study targets adult females and shows the analysis of physical images affecting clothing behavior,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of ready-made clothes, favorite ready-made clothes design, and weight control as well as the resul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influencing clothing behavior. An individual satisfied with their body prefers bright colors and shiny clothes, on the other hand, an individual who is dissatisfied with their body do not like ready-made clothes and favor loose suits. This study shows that individuals not satisfied with their body are afraid of becoming fat and are following a weight control program. The analysis explains that women (who care for their appearance well) pursue aestheticism, superiority, and are more satisfied with ready-made clothes with casual, feminine, and fancy motifs. It also shows that women who have no confidence in their body follow feminine modesty; on the contrary, those who are confident of their body are satisfied with ready-made dresses and prefer a sexy image. As a result, those who do not care about their looks seek feminine modesty, functionality, and easy-management.

Key words: Body image, Clothing behavior, Weight control; 신체이미지, 의복행동, 체중조절

I. 서 론

현대인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 높아진 경제 수준으로 자기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대되어 신체와 의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대인에게 신체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대상으로 간주된다. 신체는 자신을 투영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체의 들어냄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한다. 자신의 신체를 통해 존재성을 깨닫는 현대인들에게 신체란 삶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실체이기 때문에 타고난 신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행위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신체를 돌보고 가

꾸는 것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간주한다. 보기 좋은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의 확산은 개인들에게 점차로 신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대한 스스로 지각이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외모로 인간의 우월성을 가리고 외모에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고, 그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체형을 회피하게 되고, 신체의 건강함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외모, 즉 건강함이 바탕이 되는 날씬한 외모를 선호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날씬한 신체는 보통의

[†]Corresponding author
E-mail: ihkim@kopo.ac.kr

여성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이미지를 이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홍금희, 2006). 요즘은 웬만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외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외모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오미라, 2008).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 풍토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나은 외모를 갖기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특히 살이 찐 사람은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기 쉽고, 늘씬한 몸매를 가진 사람은 그 만큼 자기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모 즉 신체이미지 관리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다.

의복은 인간에게 있어 신체보호적인 차원에서나 정신적, 심리적, 심미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왔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한층 촉진하게 되었으며, 의생활에 있어서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맞춤형보다는 미리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즉석에서 신속하게 자신의 체형과 개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인 면에서 편리한 기성복을 선호하게 되었다(권수애, 김인화, 2005). 그러나 기성복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의 다양한 체형만큼 여러 치수를 생산하기는 어려워 소비자들은 기성복에서 편안한 맞춤새를 얻기 위해서 의복을 구입할 때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보정하거나 수선을 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권수애, 김인화, 2005). 아름다운 외모가 능력으로 평가되는 현대는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 연구는 패션 관련 학문과 패션 관련 업계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9세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신체이미지에 따라 기성복의 만족도와 선호 디자인, 체중조절행동의 관점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패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신적 견해이며, 자신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태도에 초점을 둔 심리적 경험으로서의 신체라고 정의하였다(김광경 외, 2001). Lennon and Rudd(1994)는 신체 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인 이미지로서, 신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인식적인 요소로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치수, 형태, 체중, 특징, 운동기능 등을 보는 방식을 말하며, 태도적인 요소로는 개인이 이런 특성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그 느낌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고 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경험을 통하여 형성하게 되는 신체에 관한 정신적 표상으로서, 자신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신체이미지는 신체에 대한 기능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신체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가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송경자, 김재숙(2005)은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인식된 체형이 더 중요하게 인지되며,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인지할수록 자아개념과 의복과시성이 높았고, 자신의 신체지각에서 왜곡이 적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신체만족도는 자아정체감이나 자기 존중과 같은 심리적 요인, 연령, 교육, 경제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 외에 의복에의 만족이나 다양한 의복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의복행동

의복은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며, 한 사회 안에서 사회계층의 중요한 상징이 된다(강혜원, 1995).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관습,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복을 통해서 착용자의 신분, 직업, 관심, 태도, 가치관 및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의복행동은 자기 표현임과 동시에 자신의 인상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를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는 의복이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의복태도의 변인으로는 심리적 의존성, 상징성, 흥미성, 심미성, 관리성, 안락성, 정숙성, 동조성 및 유행성 등을 들 수 있다. 김영인, 강혜원(1981)은 여학생들이 외출시 사복을 착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복 착용시 활동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하여 청소년들이 의복의 안락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의복행동의 유형

이금실(1992)은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태도연구에서 계층 간의 의복태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유행성, 심미성 및 정숙성으로 증상류층은 하류층에 비해 유행성과 심미성에 관심이 높은 반면, 하류층은 정숙성을, 계층에 따른 의복태도는 증상류층이 동일한 행위유형을 나타내는 집단이라 하였다.

강경자(1992)의 연구에서 의복의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잡지 접촉도이며, 의복의 심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실현 하위변인으로 자아실현과 자기 수용성, 인간관이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월수입, 여성잡지 접촉도라고 하였다. 이금실(1992)의 연구에서 주부들이 실용성을 가장 중시했으며,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실용성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고 하였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리성을 실용성이라 명명하여 의복행동변인 중 실용성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이 가정주부였고, 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의복의 가격 및 관리적인 측면인 실용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의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격,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동조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

기성복은 디자인과 치수가 여러 종류로 되어있어 소비자가 필요로 할 때 사서 바로 입을 수 있으며,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므로 구입하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권수에, 김인화(2005)는 중년 여성의 기성복 재킷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들레항목에 대한 불만족 요인보다 길이항목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들레항목의 경우에는 가슴들레나 허리들레에 비해 엉덩이들레의 치수가 약간 작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특히 중년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택에 있어서는 연령과 비만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재 의복의 기성복화에 있어서 많은 중년 소비자들 기성복을 착용하지만 부족한 치수체계로 인한 부적합성과 무리한 수직분할과 착탈의 용이성만을 강조한 디자인의 획일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연령대 여성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3)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신체이미지와 의복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의 여러 측면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영운(1982)은 중년기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신체만족도와 의복맞춤새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및 의복에 더 만족했고, 의복이 몸에 잘 맞는다고 느끼며,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했다.

송경자, 김재숙(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닌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며, 과시적인 의복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의복행동에서는 비만한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닌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으로 의복에 덜 의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의복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체중조절행동

체중조절의 본래 의미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체중을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 모두를 포함하나 여성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체중조절행동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에 대한 행위와 관심도, 그리고 체중조절신념을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체중조절신념은 체중조절이 무엇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가에 관한 기대 성향이다(조선진, 1997). 많은 여성이 체중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식사량의 조절과 운동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조선진, 1997).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한 관심과 날씬함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고 있고, 심지어 비만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외모적 손상으로 취급하는 경향까지 나타나 비만인 경우뿐 아니라 정상체중인 경우에도 스스로 체중감량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의 대부분은 비만이 가져오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시도하기보다는 단지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가 더 심각하다(김미옥, 장은재, 2009).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비만에 대한 경시로 변화되고, 사회 전반에 날씬함을 아름다움과 동일시하고 자아통제, 우아함, 매력, 젊음 등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이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체형에 대한 불만족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 비정상적인 식습관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미옥, 장은재(2009)도 연령별 비만에 대한 인식에서 10대 여고생과 20대 여성이 체중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사춘기 소녀들과 여대생들이 자신의 현재 체중보다 마른 체중을 희망하고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보면 중·고생들이 체중조절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중조절에 관련된 문제는 전 연령대의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여성들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과 어떠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며, 연령은 만 19세부터 59세까지 여성을 임의 표집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009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 35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26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설문지의 내용은 선행연구(이주영, 2003)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외모평가 12문항과 신체만족도 평가 4문항을 합하여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16문항, 의복행동에 관련된 문항은 박혜선, 김화순(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46문항, 차진희, 김재숙(1995)이 제시한 체중에 관련된 13문항, 의복의 디자인 선호도에 관련된 11문항(김은애, 이명희, 1992)을 5점 Likert 척도

법을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체중조절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방법, 요인회전은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 및 체중조절과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9~29세가 31.9%, 30~39세가 20.6%, 40~49세가 34.4%, 50~59세가 13.2%로 나타났으며, 60.4%가 기혼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27.9%), 500만원 미만(20.2%), 400만원 미만(18.7%), 200만원 미만(16.3%), 600만원 이상(12.3%), 100만원 미만(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44.4%), 전문대졸(15.0%), 대졸(20.9%), 대학원졸(4.9%)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고졸로 표기하여 고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33.7%)가 가장 많았고 학생(31.3%), 전문직 여성(21.2%), 사무직(5.5%), 서비스직(4.3%), 전문경영인(4.0%)의 순으로 나타나 전업주부보다 취업여성이 많았다. 거주지는 경기도(57.7%), 서울(34.0%), 충남북·대전(4.0%), 인천(2.1%), 기타(2.1%)로 나타났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91.7%로 나타났다.

현재 체중조절을 위해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4.2%만이 있다고 답하였다.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운동(100.0%), 여러 가지 병행(68.8%), 식이요법(68.1%), 사우나(58.3%), 단식(4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을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을 가장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조선진, 1997)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기혼여성(64.6%)과 전업주부(35.4%), 연령은 40대(36.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식은 미혼여성(53.5%), 학생(40.8%), 연령은 20대(40.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나는 기혼여성(63.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6)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19~29세	104(31.9)	직업	전업주부	110(33.7)
	30~39세	67(20.6)		학생	102(31.3)
	40~49세	112(34.4)		전문직	69(21.2)
	50~59세	43(13.2)		사무직	18(5.5)
결혼여부	미혼	129(39.6)		서비스직	14(4.3)
	기혼	197(60.4)		전문경영인	13(4.0)
학력	고졸이하	193(59.2)		거주지	서울
	전문대졸	49(15.0)	경기도		188(57.7)
	대졸	68(20.9)	충남북·대전		13(4.0)
	대학원졸 이상	16(4.9)	인천		7(2.1)
월수입	100만원 미만	15(4.6)	체중조절여부		있다
	200만원미만	53(16.3)		없다	182(55.8)
	300만원 미만	91(27.9)	체중조절실태	운동	144(100.0)
	400만원 미만	61(18.7)		단식	71(49.3)
	500만원 미만	66(20.2)		사우나	84(58.3)
	600만원 이상	40(12.3)		식이요법	98(68.1)
여러 가지 병행				99(68.8)	

전업주부(32.1%), 연령은 40대(44.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이요법은 기혼여성(54.1%), 전업주부(31.6%), 연령은 20대(35.7%)와 40대(34.7%)가 근소한 차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요인분석 결과

1) 신체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신체이미지에 대한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 이상인 것과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문항은 반대의 의미도 그냥 코딩을 하고 절대값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1은 신체부위 중 체중과 둘레부위의 만족함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체중만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은 30.12%(고유값=4.82)를 설명하여 신체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1$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항상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며 아름답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외모관리'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17.28%(고유값=2.77)

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1$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자신이 스스로 신체에 대해 만족하며, 성적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문항으로 '신체자신감'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12.73%(고유값=2.04)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 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자신의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에 관련된 문항으로 '외모무관심'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6.05%(고유값=1.25)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0$ 로 나타났다. 이들 신체이미지를 구성하는 4요인의 총 설명력은 66.18%로 나타났다.

2) 의복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의복행동에 대한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미성, 우월성, 편안성, 정숙성, 유행동조성,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 개성, 경제성의 8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57.21%로 <표 3>과 같다.

요인 1은 의복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심미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은 12.69%(고유값=7.16)를 설명하여 의복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표 2> 신체이미지 요인분석 결과

(N=326)

요 인	추 정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분 산 (%)	누적분산 (%)	신뢰도
체중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내 허리둘레에 만족한다. 나는 배둘레에 만족한다. 나는 내 체중에 만족한다. 나는 엉덩이둘레에 만족한다. 	.912 .911 .852 .797	4.82	30.12	30.12	0.91
외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나는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나는 언제나 멋져 보여야 한다. 	.756 .751 .728 .717 .714	2.77	17.28	47.40	0.81
신체 자신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 나는 신체적인 매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느낄 것이다. 나는 옷을 입지 않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877 .864 .777 .718	2.04	12.73	60.13	0.86
외모 무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모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831 .470	1.25	6.05	66.18	0.60

나타났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의복에 대한 우월감과 과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서 '우월성'이라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8.46%(고유값=4.82)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의복에 대하여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항으로 '편안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6.86%(고유값=3.75)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8$ 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의복의 정숙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정숙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6.62%(고유값=2.58)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 로 나타났다.

요인 5는 유행동조에 관련된 문항으로 '유행동조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6.20%(고유값=2.16)를 설

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4$ 로 나타났다.

요인 6은 의복의 기능성과 관리에 관련된 문항으로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5.83%(고유값=1.84)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5$ 로 나타났다.

요인 7은 의복에 대한 개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개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5.49%(고유값=1.57)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 로 나타났다.

요인 8은 경제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경제성'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5.06%(고유값=1.25)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4$ 로 나타났다. 이들 의복행동을 구성하는 8요인의 총 설명력은 57.21%로 나타났다.

<표 3> 의복행동 요인분석 결과

(N=326)

요 인	추 정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분 산 (%)	누적분산 (%)	신뢰도
심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옷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나에게 옷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옷에 관련된 많은 일에 흥미를 느낀다. 나는 옷을 사지 않더라도 옷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이 나의 옷차림에 대해 칭찬할 때 기쁨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항상 관심있게 살펴본다. 멋있는 옷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나는 최근의 유행스타일을 알기 위해서 옷 가게의 진열을 살펴본다.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30 .813 .787 .764 .669 .666 .621 .564 .558 .540	7.16	12.69	12.69	0.89

<표 3> 계 속

요 인	추 정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분 산 (%)	누적분산 (%)	신뢰도
유월성	·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유명상표 의복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78	4.82	8.46	21.15	0.86
	· 명성있는 상표의 옷은 입은 사람을 품위있게 보이게 한다.	.762				
	·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입은 옷이 비싼 상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관심을 더 갖게 된다.	.745				
	· 값이 비싸더라도 품위있어 보이는 옷을 좋아한다.	.732				
	· 적어도 밖에 나갈 때 남이 인정해 줄만큼 좋은 상표의 비싼 옷을 입고 싶다.	.707				
	· 디자인이 유사할지라도 가격이 싼 것보다는 잘 알려진 상표의 것을 산다.	.660				
편안성	· 옷을 이루는 신체적인 편안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04	3.75	6.86	28.01	0.78
	· 착용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옷이 좋다.	.741				
	· 옷을 살 때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옷을 산다.	.717				
	· 활동하기 편안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597				
	· 옷을 살 때 유행에 관계없이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산다.	.524				
정숙성	· 비치는 옷은 점잖지 않다고 생각한다.	.829	2.58	6.62	34.63	0.82
	· 신체를 많이 노출시킨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동행할 때 창피한 느낌이 든다.	.808				
	· 몸에 꼭 끼이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민망해진다.	.781				
	· 노출이 심한 옷을 태연하게 입는 것은 정숙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721				
	· 목이 너무 파져 가슴이 들여다보이는 옷은 입지 않는다.	.573				
유행 동조성	· 친구들이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 품질의 옷을 선택하고 싶다.	.801	2.16	6.20	40.83	0.74
	· 모임에서 친구들과 유사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700				
	· 옷을 선택할 때 내 친구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674				
	·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옷을 모방한다.	.600				
	· 옷이 아름답더라도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	.425				
가능성 및 관리용이성	· 되도록이면 다림질이 필요없는 옷을 사도록 한다.	.648	1.84	5.83	46.66	0.65
	· 무엇보다도 크기가 풍성하며 편안한 옷을 사도록 한다.	.647				
	· 겨울옷은 스타일보다 따뜻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01				
	· 나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마음에 들어도 그 옷을 손질하는데 불편하다면 사지 않는다.	.460				
개 성	·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겠다.	.815	1.57	5.49	52.15	0.82
	·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옷은 그냥 입는다.	.703				
경제성	· 이 옷이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산다.	.718	1.25	5.06	57.21	0.64
	· 가격이 적당한 것을 파는 가게를 찾을 때까지 여러 가게를 돌아다닌다.	.692				
	· 좋고 비싼 옷을 한두 벌보다는 값이 싼 여러 벌의 옷을 산다.	.555				
	· 유행은 빨리 바뀌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서 옷을 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549				
	· 가격할인이 아니면 거의 옷을 사지 않는다.	.537				
	· 비록 옷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적당한 가격이면 산다.	.450				

3) 체중조절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체중조절행동에 대한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만우려, 체중관리, 몸매무관심의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2.4%로 <표 4>와 같다.

요인 1은 비만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비만우려'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은 31.0%(고유값=5.61)를 설명하여 신체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자신의 신체 및 체중관리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체중관리'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30.3%(고유값=1.97)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자신의 신체관리에 관심이 없는 문항으로 '몸매무관심'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11.1%(고유값=1.75)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3$ 로 나타났다. 이들 체중조절행동을 구성하는 3요인의 총 설명력은 72.4%로 나타났다.

3.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 하위차

원의 외모관리, 외모무관심이었다. 즉 외모관리를 많이 할수록, 외모에 관심이 있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을 추구하고, 외모에 무관심한 사람은 심미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와 외모무관심 요인 중 심미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관리로 외모관리 요인이 여성의 의복에 대한 심미성 추구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이주영(2003)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우월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 하위차원의 외모관리였는데, 이는 외모관리를 많이 할수록 의복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 하위차원의 신체자신감과 외모무관심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에 자신감이 없을수록, 외모에 무관심할수록 정숙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 하위차원의 신체자신감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자신감이 있을수록, 유행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영(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 하위차원의 외모무관심으로 나타났는데, 외모에 무관심할수록 의복의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성, 개성, 경제성은 신체이미지 하위차원의 어떤 성질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심미성, 우월성, 정숙성, 유행동조성, 기능

<표 4> 체중조절 요인분석 결과

(N=326)

요인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분산 (%)	누적분산 (%)	신뢰도
비만 우려	· 타인이 살찐다는 소리를 하면 내 몸무게 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851	5.61	31.00	31.00	0.86
	· 나는 언제나 살찐 것에 대해, 또는 살이 찢까봐 걱정한다.	.850				
	· 나는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걱정한다.	.759				
	· 나는 항상 비만을 우려하고 있다.	.665				
	·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칼로리를 신경 쓰게 된다.	.533				
체중 관리	· 나는 몸매를 가꾸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이다.	.889	1.97	30.30	61.30	0.84
	·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체중을 줄이려고 강력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다.	.823				
	· 나는 비만 전문 관리센터를 다녔거나 다닐 의향이 있다.	.803				
	· 나는 절식 혹은 단식 등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	.775				
	· 체중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	.759				
· 나는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이다.	.505					
몸매 무관심	·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은 아니다.	.836	1.75	11.10	72.40	0.63
	·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770				

<표 5>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N=326)

독립변수	종속변인	B	β	t	R ²	F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심미성	.006	.008	.172	.377	48.630***
		.515	.526	10.165***		
		-.031	-.035	-.735		
		-.155	-.170	-3.433***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우월성	.046	.060	1.067	.071	6.158***
		.226	.212	3.356***		
		.048	.050	.856		
		-.034	-.034	-.559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편안성	-.004	-.007	-.119	.025	2.068
		.105	.125	1.932		
		-.009	-.012	-.202		
		-.048	-.061	-.979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정숙성	.059	.072	1.262	.042	3.510**
		.004	.004	.058		
		-.142	-.142	-2.392*		
		.152	.145	2.364*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유행 동조성	.035	.056	.972	.031	2.544*
		.012	.014	.214		
		.111	.144	2.411**		
		-.007	-.009	-.138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	-.046	-.092	-1.610	.055	4.671**
		-.028	-.041	-.645		
		-.041	-.067	-1.134		
		.101	.158	2.600*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개 성	-.031	-.037	-.636	.017	1.369
		.101	.087	1.335		
		.053	.051	.845		
		.091	.084	1.346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경제성	-.019	-.034	-.579	.017	1.352
		-.035	-.046	-.704		
		-.037	-.054	-.891		
		.048	.068	1.091		

* $p \leq .5$, ** $p \leq .01$, *** $p \leq .001$

성 및 관리용이성의 의복행동에 신체이미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의복을 통해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2003)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편안함, 개성, 경제성에도 신체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대상이 전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가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하위차원의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의 4가지 요인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요인은 종속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 요인 중 캐주얼한 이미지, 진한 색상의 옷, 두께가 있는 질감은 신체이미지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 요인 중 유의한 영향이 있는 문항은 색시한 이미지, 여성스런 이미지, 화려한 이미지, 몸에 꼭 맞는 옷, 몸에 느슨한 옷, 밝은 색상의 옷, 광택이 있는 질감의 소재, 투명한 질감의 소재였다.

신체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색시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외모관리를 잘 할수록 여성스런 이미지와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 중

<표 6> 신체이미지가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N=326)

독립변수	종속변인	B	β	t	R ²	F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색시한 이미지	.068	.071	1.307	.143	13.346***
		.073	.055	.912		
		.353	.298	5.311***		
		-.130	-.105	-1.814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캐주얼한 이미지	-.068	-.079	-1.370	.023	1.875
		.179	.151	2.323		
		-.061	.057	-.957		
		.048	.043	.696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여성스런 이미지	.111	.051	2.185*	.071	6.093***
		.258	.078	3.296***		
		.037	.065	.572		
		.025	.070	.352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화려한 이미지	.088	.085	1.510	.085	7.492***
		.330	.231	3.689***		
		.105	.082	1.421		
		.023	.017	.289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몸에 꼭 맞는 옷	.175	.177	3.169**	.097	8.637***
		.126	.092	1.481		
		.141	.115	2.000		
		-.124	-.097	-1.624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몸에 느슨한 옷	-.136	-.149	-2.610**	.046	3.858**
		.082	.065	1.019		
		-.088	-.079	-1.327		
		.150	.128	2.094*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진한 색상의 옷	.028	.030	.523	.030	2.494
		.153	.120	1.858		
		.001	.000	.008		
		-.088	-.074	-1.194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밝은 색상의 옷	.119	.134	2.314*	.031	2.577*
		.157	.127	1.974*		
		-.059	-.053	-.894		
		.040	.035	.563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광택이 있는 질감의 소재	.102	.112	1.970*	.061	5.207***
		.212	.169	2.661**		
		.096	.086	1.457		
		.095	.081	1.335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두께가 있는 질감의 소재	.021	.027	.457	.015	1.250
		.124	.113	1.739		
		-.007	-.007	-.113		
		.118	.116	1.858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투명한 질감의 소재	-.015	-.017	-.289	.046	3.851**
		.161	.125	1.952		
		.145	.126	2.127*		
		-.047	-.039	-.634		

* $p \leq .5$, ** $p \leq .01$, *** $p \leq .001$

체중과 둘레부위에 만족할수록 꼭 맞는 의복을, 신체에 만족하지 못 할수록 느슨한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에 만족하고 외모관리를 잘 할수록 밝은

색상과 광택이 있는 질감의 소재를 선호하고, 신체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투명한 질감의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비만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 하위 차원의 체중만족, 외모관리였다. 즉 자신의 신체가 만족하지 못 할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할수록 체중에 대해서 비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 하위 차원의 체중만족이었다. 즉 신체가 만족하지 못 할수록, 체중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매무관심은 신체이미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비만우려, 체중관리에 신체이미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에 만족하지 못 할수록 비만을 우려하고,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영(2003)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신체자신감이 없을수록 무관심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이 전 연령대의 여성이라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59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 기성복 디자인 선호도,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이미지에 관련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의 4가지 요인으로 나타났고, 의복행동에 관련된 문항의 요인

분석 결과는 심미성, 우월성, 편안성, 정숙성, 유행동 조성,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 개성, 경제성의 8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행동에 관련된 문항의 요인 분석 결과는 비만우려, 체중관리, 몸매무관심의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이미지 하위차원의 자신의 체중에 만족한 사람은 여성스런 이미지와 몸에 꼭 맞는 옷을 선호하고, 느슨한 옷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밝은 색상과 광택이 있는 소재를 선호하고 자신의 체중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비만을 우려하고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이미지 하위차원 중 외모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의복행동 중 심미성 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관리를 많이 할수록, 외모에 관심이 있을수록 기성복은 캐주얼한 이미지, 여성스런 이미지,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밝은 색상과 광택이 있는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체중조절행동에 대해서는 비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체이미지 하위차원 중 신체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유행에 동조하고, 섹시한 이미지와 투명한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정숙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체이미지 하위차원 중 외모에 무관심한 사람은 정숙성과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을 추구하고, 심미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느슨한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신체이미지가 심미성, 우월성, 정숙성, 유행동 조성,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의 의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외모에 관심이

<표 7>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N=326)

독립변수	종속변인	B	β	t	R ²	F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비만우려	-.380	-.411	-7.871***	.227	23.585***
		.352	.275	4.745***		
		-.049	-.040	-.734		
		-.058	-.049	-.879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체중관리	-.337	-.374	-6.791***	.137	12.720***
		.147	.118	1.925		
		.031	.026	.461		
		-.009	-.008	-.135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	몸매무관심	-.029	-.035	-.594	.019	1.593
		-.125	-.109	-1.663		
		.128	.117	1.910		
		.020	.019	.305		

***p≤.001

많을수록 의복을 통해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무관심 할수록 기성복 디자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몸매무관심은 신체이미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서 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체중조절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며, 신체이미지에 따라 의복행동, 기성복 선호도, 체중조절행동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류제조 업체들은 이와 같은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기성복 선호도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미지에 부합되는 적절한 의복의 제작이 요구된다. 치수만으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특징을 파악하여 이미지별로 선호하는 디자인, 활동하기 편한 기성복 패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여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형의 변화가 심하여 연령대별로 신체이미지나 의복행동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기성복 산업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므로 전국의 여성 소비자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참고문헌

- 강경자. (1992).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1)-자아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4), 27-38.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권수애, 김인화. (2005). 중년 여성을 위한 마담브랜드 기성복의 재킷 치수체계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653-663.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미옥, 장은재. (2009). 연령별 비만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에 대한 태도.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2(1), 110-122.
- 김영인, 강혜원. (1981).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 13-19.
- 김은애, 이명희. (1992).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 18, 269-281.
- 박해선, 김화순. (1998). 의복태도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2), 279-289.
- 송경자, 김재숙. (1999). 신체이미지, 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태도적,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5), 68-79.
-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 오미라. (2008). *남녀 대학생의 신체이미지가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금실. (1992). *사회계층변인에 따른 의복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운.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영. (2003). *중년 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선진. (1997).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조절행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진희, 김재숙. (1995). 성역할의 개념, 의복 성정체감,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5), 738-746.
- 홍금희.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2), 348-357.
- Lennon, S. J., &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women.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2), 94-117.